

‘백발의사’ 이강안 원장 성천상 수상

청산도 16년 의술... ‘건강 지킴이’

**JW그룹 중의학술복지재단 선정
폐원 위기 병원에 원장 자임
하루 평균 환자 120명 진료
매년 1000만원 이상 기부도**

전라남도 최남단 청산도에서 홀로 인술을 펼치며 여생을 바치고 있는 이강안 원장이 올해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JW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의학술복지재단은 제7회 성천상 수상자로 이강안 청산도 푸른피중양의원 원장(83)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원장은 ‘부와 명예보다 희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신념 아래 안정된 노후 생활 대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전남 완도군 청산도와 인근 섬마을의 유일한 의사로서 16년째 헌신하고 있다.

1962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잠실병원 부원장, 해민병원 원장을 거쳐 1993년 서울 화곡동에서 이강안 의원을 개원해 10년간 운영했다. 이후 근무 의사가 없어 폐원 위기에 처한 푸른피중양의원의 소식을 접하고 2004년 원장을 자임했다.

청산도는 내륙으로 향하는 배편이 하루 1번 밖에 없을 정도로 고립된 환경이다.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 환자가 많아 응급상황이 수시로 발생



이강안 청산도 푸른피중양의원 원장.

한다. 푸른피중양의원은 약 2200여 명이 살고 있는 청산도 유일한 의료기관으로 2003년 설립됐지만 1년 동안 의사가 4차례나 바뀔 정도로 의료 환경이 열악했다.

이 원장은 생업에 바쁜 주민들을 위해 오전 7시 40분부터 진료를 시작하며 하루 평균 120명의 환자를 돌본다. 지난 16년간 수행한 외래진료는 48만 건에 달한다. 진료시간 외에도 환자 가정을 수시로 방문해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인근 섬민 여서도, 모도까지 배편으로 왕진을 다닐 정도로 봉사정신이 투철하다.

이 원장은 남다른 선행도 펼쳐왔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쌀과 고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기증하고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경로잔치를 열어주는 등 매년 1000만 원 이상의 기부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성나 성천상위원회 위원장(가천의대 명예총장)은 “안정된 노후의 삶을 포기하고 섬마을 주민들을 위해 자신의 노년을 바친 이강안 원장의 삶이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과 부합된다”라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시상식은 오는 8월 27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성천상은 국내 최초 수액제 개발과 필수약품 공급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고(故)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을 기려, 음지에서 묵묵히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인류 복지 증진에 커다란 공헌을 한 참 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코트라, 스타트업 中서부내륙 진출길 연다

中 청두서 사흘간 ‘멘토링 패키지’

KOTRA(코트라)는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중국 서부내륙 진출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기존 베이징, 상하이, 선전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한중 스타트업간 교류를 내륙으로 확대한 모델이다.

코트라는 경기대학교와 협업으로 16일부터 사흘간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국내 스타트업 중국 내륙진출 멘토링 패키지’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대 창업기업 2개사(퀀텀솔루션, 모도컴퍼니)를 비롯해 ▲만나통신사(비즈니스여행기획) ▲누리바이오(유전분석 플랫폼) ▲소소(뇌파디바이스 솔루션) ▲포도씨(키오스크) ▲상상날다(교육용 SW) 등 혁신 스타트업 10개사가 참가한다.

중국 서부 내륙에 위치한 쓰촨성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육성 정책에 따라 귀국 유학세대를 중심으로 창업이 활발하다. 총 11만 5000개 기업 중 창업기업이 약 1만 5000개(13%)에 달한다. 또한 인텔·IBM 등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약 350여개사가 중국 서남지역의 거점을 마련하는 등 전자, 정보통신 기술(ICT), 바이오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발돋움하고 있어 우리 스타트업의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두루 갖췄다.

이번 사업은 현지 창업인프라를 활용해 ▲현지 진출 멘토링 ▲시장조사 및 기업방문 상담 ▲데모데이(피칭)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등 현지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패키지로 단기간에 집중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도했다. 특히 참가 스타트업별로 배정된 해당분야 전문가 멘토(1명)와 코디네이터(1명)가 전 일정을 함께해 눈길을 끈다.

/양성운 기자 ysw@



기술보증기금은 15일 서울 여의도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KEB하나은행과 우수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세번째부터)정윤모 기보 이사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 은행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기보-KEB하나은행, 中 海외진출 맞손

‘해외진출보증’ 제도 확대 개편

기술보증기금이 KEB하나은행과 손잡고 우수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기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하나은행과 ‘해외진출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기업 정보 공유 등 상호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 해외진출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국내 은행 중 해외에 가장 많은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기보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신남방 진출기업에 2022년까지 1조원 해외보증 지원’ 계획에 따라 해외진출 희망기업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보증 지원을 위해 보증대상기업 요건을 완화하는 등 ‘해외진출보증’ 제도를 확대 개편했다.

‘해외진출보증’은 사업 확장을 위해 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있거나 설립 예정인 국내 모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 해외자회사 지분 등을 취득하거나 자회사에 장기 대여하는 자금을 대한보증인 ‘해외투자자금보증’과 해외자회사 사업화 자금을 보증신용장(Stand by L/C)을 통해 지급 보증하는 ‘해외사업자금보증’으로 구성돼 있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광명시와 청년창업 힘 모은다

혁신창업센터 조성 등 협력 MOU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광명시, 백재현 국회의원(경기 광명시갑)과 15일 경기 광명시청에서 ‘청년창업 및 기업지원 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중진공 김현태 부이사장, 박승원 광명시장, 백재현 국회의원, 청년창업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은 보유자원을 활용해 지역특화 협업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세부 협약내용으로는 ▲청년창업 활성화 위한 혁신창업센터 조성 및 운영 협력 ▲청년창업사관학교, 정책자금 등 연계지원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광명시 백재현 의원과 ‘청년창업 및 기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왼쪽부터)백재현 국회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김현태 중진공 부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창출 및 수출확대를 위한 협업·사업연계 ▲지역 사회회경제기업 활성화 ▲북한 이탈주민 등 사회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등으로 향후 광명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다.

업무협약에 앞서 중진공과 백재현 국회의원의실은 지난달 말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북한 이탈주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과 취업·창업 전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또 협약식 이후에는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청년창업자, 중소기업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중진공 정책설명회와 1대1 밀착상담을 실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중진공 김현태 부이사장은 “광명시, 백재현 국회의원의실과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지자체와 다양한 지역특화 협업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서울시교육청-서울시 ‘학생 흡연예방’ 토론회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는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제2회 학생 중심 흡연예방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에서 시행되는 흡연예방사업과 지역사회 금연정책에 대해 토론했고, 청소년의 역할을 모색함으로써 학생들이 흡연예방 활동에 주도

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토론회에는 흡연예방 동아리 운영 중인 학교를 중심으로 서울시 소재 16개 중·고등학교와 서울시 청소년의회 소속 학생 약 120여명과 지도교사가 참가한다.

토론회 주제는 ‘우리가 만드는 담배 없는 세상’으로 참가 학생들은 비흡연

(금연) 선포식, 흡연예방 캠페인, 흡연예방 동아리 활동, 담배 없는 학교를 위한 규칙, 우리 동네 간접흡연 예방책, 담배 광고를 없애는 방법 등 학교와 지역사회 수준의 세부 주제를 조별로 토론했다.

한편 학교보건진흥원은 19일 오후 3시부터 ‘제5회 흡연예방 및 금연창작작품 공모전’ 시상식을 학교보건진흥원 2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수상자 71명에게는 표창장과 부상을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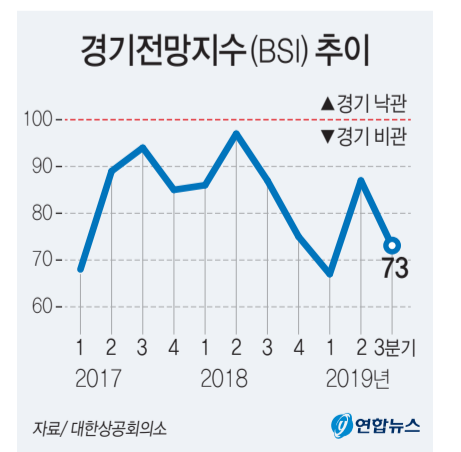
/한용수 기자

제조업 3분기 체감경기 전망 ‘흐림’

대한상의 BSI 발표... 14p 하락

제조업 체감경기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분기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BSI)를 15일 발표했다. 전국 23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3분기 BSI는 전분기보다 14포인트나 떨어져 73을 기록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긍정적, 이하면 부정적이다. 당면한 애로사항으로는 ‘국내외 경기둔화에 따른 매출 부진’이 54.3%로 가장 많았다. ‘임금 상승 등 비용부담의 증가’도 27.9%나 됐다.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도 6.8%가 걱정하는 부분이었다.



수출기업도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직전분기에는 100이었지만, 12포인트하락해 88로 주저앉았다. 내수부문은 14포인트나 하락해 70에 머물렀다.

/김재용 기자